항소심 판결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치료받은 뒤 돌려달라는 보험금, 요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반환청구 일부 방어

일부 방어

교통사고 치료비·기왕증 분쟁 · 항소심 판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45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은 의뢰인은 공제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 치료기간과 기존 질환의 영향이 다투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요구가 사라지는 것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에서는 배상채무의 존재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반환 범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공제사업자는 치료비 전액 상당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일부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므로,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기왕증 분쟁 · 항소심 판단

한 번의 사고로 흔들린 일상,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전액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해율이 참여한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한다면?
- 교통사고 치료가 기존 질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받았다면?
- 치료기간이 길었다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피고이자 항소인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성과는 반환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나누어 살피는 분쟁 구조를 보여주며,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04 항소심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반환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부존재 확인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있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치료비 반환청구의 일부 방어로 한정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을 때 청구 전액과 실제 인정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 사례입니다.

치료비 전액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해율이 참여한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치료비 전액 반환을 요구받은 의뢰인. 해율이 참여한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면?
- 반환 요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다면?
- 사고 치료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다퉈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